

성남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 33인
웹툰 제작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2020 VOL. 02



목차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발행호수 통권 2호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발행인 노재천

편집인 정민혁

취재·기획·편집총괄 김은정, 이유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00

편집디자인·인쇄 디자인봄

전화 031.607.8950~1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04 여는글

06 기획

역사로 문화와 평화를 그리다

위대한 시민의 문화_문화독립운동가

스스로 펼쳐 일어난 여성들_여성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된 팽수_EBS툰과의 만남

인터뷰 독립운동가 100인_웹툰 프로젝트의 '길'

15 칼럼

웹툰산업과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18 뉴스

독립운동가 웹툰, 책으로
그리고 AR로 새롭게 태어나다.

20 작가탐방

남한산성 김하락장군을 그린 이현세 만화가

26 이슈

작가와 독립운동가 후손의 만남

34 웹툰 디렉토리

33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102 팀워크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사람들

104 미디어

언론이 본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두 번째 이야기’

그들이 걸어온 역사의 길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여정

2020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북『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두 번째 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수미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은수미

역사는 시간이라는 길을 지나는 길고 긴 여정입니다.

길 위에서 넘어지고 밟혀도 우뚝 일어나 고된 여정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새롭게 새김하여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의로운 옛 발자취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나아가 새로운 콘텐츠로 미래 세대에게 가치 있는 문화와 정신을 전하고자, 사명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독립운동가 100인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그려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물 외에도,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구성하여 새롭게 알리는 작업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비단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재이기에, 대중문화 콘텐츠이자 세계적인 한류콘텐츠로 자리 잡은 ‘웹툰’이 우리의 빛나는 시간과 정신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에 적합한 장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여 명의 만화가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전통 등 다양한 분야로 독립운동을 이은 33인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33편의 웹툰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작가섭외부터 역사적 고증, 웹툰의 스토리작업과 작품연재까지 쉽지 않은 여정 속에서도 2020년 웹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연재를 위해 함께 힘써준 성남문화재단 관계자와 웹툰추진단,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님, 성남시, 웹툰 자문위원단, 그리고 웹툰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여정은 이제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걸어 나갈 여정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의 이 길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다시금 잊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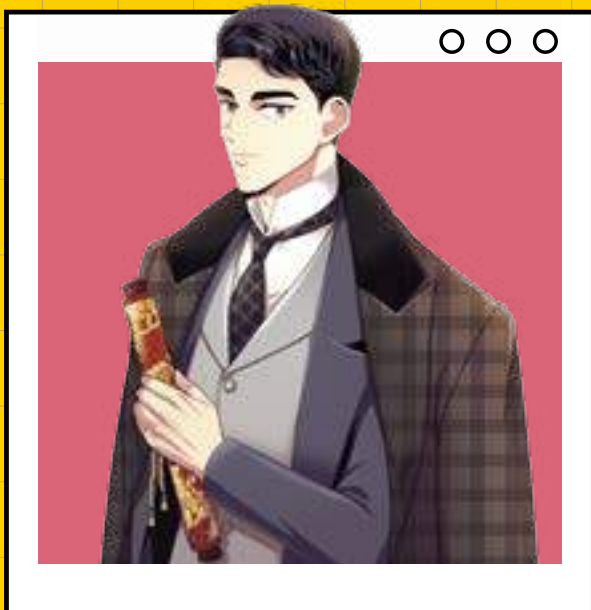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역사로 문화와 평화를 그리다



2018년 말에 시작된 성남시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2019년 33인의 독립 운동가를 시작으로 2020년 제2차 새로운 독립운동가 33인의 삶을 웹툰으로 재조명해 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의 아름다운 함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WEB
TOON**

INDEPENDENCE


위대한 시민의 문화_ 문화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항일활동을 주제로 한 웹툰으로, 3년간 독립운동가 총 100인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재조명하고 100년 항일의 역사를 지금의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추진단이 함께하여 한국만화와 웹툰계가 총출동해 100년 전 오늘을 재현한 이 뜻깊은 행보는 올해 2년차 프로젝트에서 이현세 작가, 이빈 작가, 지강민 작가 등 새로운 작가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그 의미를 이어간다. 웹툰의 전기나 회고록부터 청춘물, 로맨스, SF, 스릴러 등 전 장르를 망라해 고증과 상상력의 제한을 뛰어넘고자 노력했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작품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작가들에게 실존인물, 더구나 독립운동가의 삶을 담아내는 일은 너무나 귀한 작업인 만큼 그만큼 부담도 크다. 사실과 다르지 않아야 하되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어 나아가야 하는 웹툰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운동가를 알린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 그러함에도 독립운동가를 담아내는 일은 그들

의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기에 작가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투쟁을 다룬 데 이어 올해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기업인,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해 또 다른 33인의 삶을 그려냈다.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기반을 닦고 또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생각에서다. 도산 안창호, 백아 김좌진 등 국민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비롯해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 문화재 수호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간송 전형필 선생, 민족자본 형성에 기여한 기업가 유일한 박사, 아름다운 시어로 저항의 의지를 노래한 서정시인 김영랑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남한산성 전투의 김하락 의병장, 한글 암호를 개발한 김우전, 민족의 암흑기 속에 ‘미래’를 키워내는 문화교육 운동에 앞장선 소파 방정환, 문화를 통해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는 문화보국의 정신을 평생 실천해 온 전형필 선생, 일제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 <한국통사>와 일제 침략과정과 조선총독부의 만행을 폭로한 최초의 독립운동사인 <한국독립지혈사>를 집필해 국혼의 불씨를 일으킨 박은식 선생을 만나볼 수 있다.

최현배 선생에게 한글은 목숨이었고, 전형필 선생에게 문화재는 민족의 자존심이었다.

민족의 노래로, 민족의 시로, 거래의 열이 담긴 민족의 글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그 모든 것으로 항일 역사를 써 내려간 위대한 문화였다. 그러니 이러한 그분들의 삶을 뜨겁게 녹여낸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또한 또 하나의 위대한 시민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펼쳐 일어선 여성들_ 여성독립운동가



성남시의 웹툰 프로젝트가 일군 큰 성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것이다.

웹툰으로 재조명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의지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즈 2019 최고의 만화에 선정된 김금숙 작가의 신작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도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할 수 있었는데 정철훈 작가의 소설 김알렉산드라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이 노동당 문화예술협회가 평등한 세상을 향한 예술적 실천을 이룬 작품에 주는 레드 어워드에 ‘주목할 만한 기록’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이다.

독립운동에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포상과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2020년 8월 기준 독립 유공자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1만 6,282명이며 이들 중 여성 독립운동가는 3%인 488명에 불과하다는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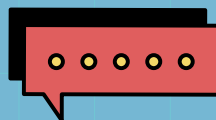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독립운동가가 2천여명에 이른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도 독립운동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도 이 점에 심분 공감하여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에 공을 들였고 이에 따라 전체 웹툰에서 여성독립운동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될 수 있었다.

1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대에 입대, 공작 활동과 항일운동을 펼쳤던 전월선 선생, 영화 밀정에서 배우 한지민이 열연한 연계순 역할의 실제 모델이자 의열단에서 목숨을 건 비밀 공작 활동을 펼쳤던 현계옥, 상해여자청년동맹, 애국부인회 활동 등을 통해 평생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와 결집에 헌신한 연미당 선생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암살을 계획했으며 혈서 ‘조선 독립원’을 작성하여 조국의 독립을 호소한 남자현을 비롯해 수원 최고의 기생으로 3·1운동 당시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향화, 일본 관리들이 해녀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제주도해녀조합을 어용화하려 하자 시위를 주도하고 도사 전구정희와 담판을 벌여 요구조건을 관철시킨 부춘화 선생도 만나볼 수 있다. 광복군에 입대해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기도 한 오광심은 조국 광복을 위해 여자도 남자와 평등하게 참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남편을 도와 그 이상의 역경을 이겨내며 조국의 독립에 헌신했던 한도신 선생도 빼 놓을 수 없다. 그녀는 1922년 상해로 건너가 안창호, 김구, 여운형 선생 등을 가까이 모시며 항일투쟁을 돕기도 했다. 이처럼 2차 프로젝트에서는 누군가의 딸, 부인, 어머니가 아닌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일제 치하 남성 지배구조라는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 펼쳐 일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전월선
1923-2009



연미당 1908-1981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김향화
1897-미상



현계옥 1897-미상

FEMALE ACTIVISTS

독립운동가가 된 펭수_ EBS툰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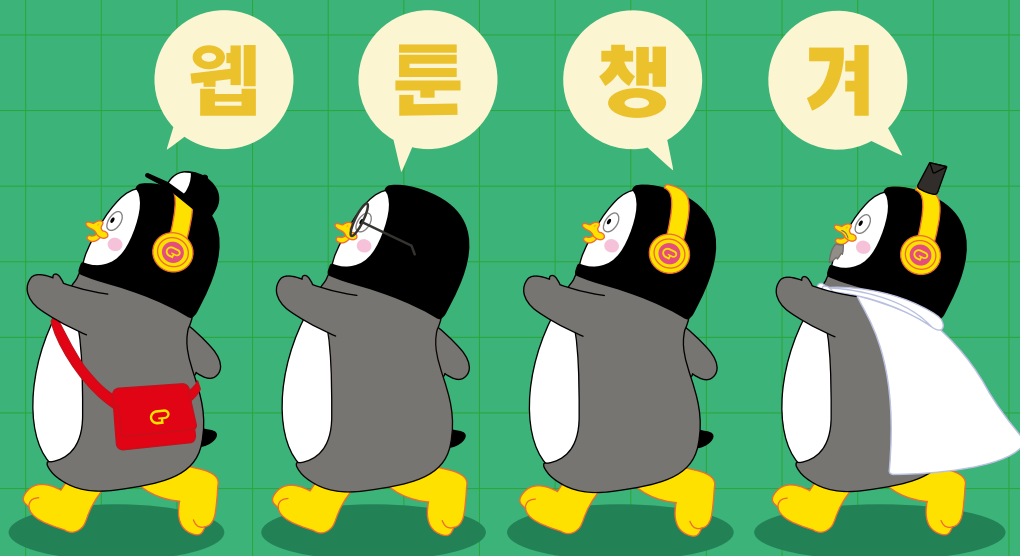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 100인 웹툰 프로젝트 작품은 광복절부터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을 통해 연재를 진행했다. EBS툰의 메인에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전용관'을 오픈해 매주 1화씩 6개월간 연재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웹툰의 1차 플랫폼이었던 다음 웹툰에 이어 2차에는 EBS툰에 연재하게 된 것인데,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70년간 어린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 EBS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맥이 닿아 있어 의미가 깊다. 교육용 웹툰 플랫폼 성격에 맞게 어린이(12세 미만)와 일반인(15세 이상) 대상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된 독립운동가 웹툰은 EBS툰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1차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홍보행사들이 코로나 19라는 악재 속에 제한되어 성남문화재단은 기존에 계획했던 홍보 방법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선정한 '올해의 연예 부문 인물'로 뽑혔던 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를 통한 홍보였다.

펭수는 독립운동가 현계옥, 강우규, 엄항섭으로 분해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을 홍보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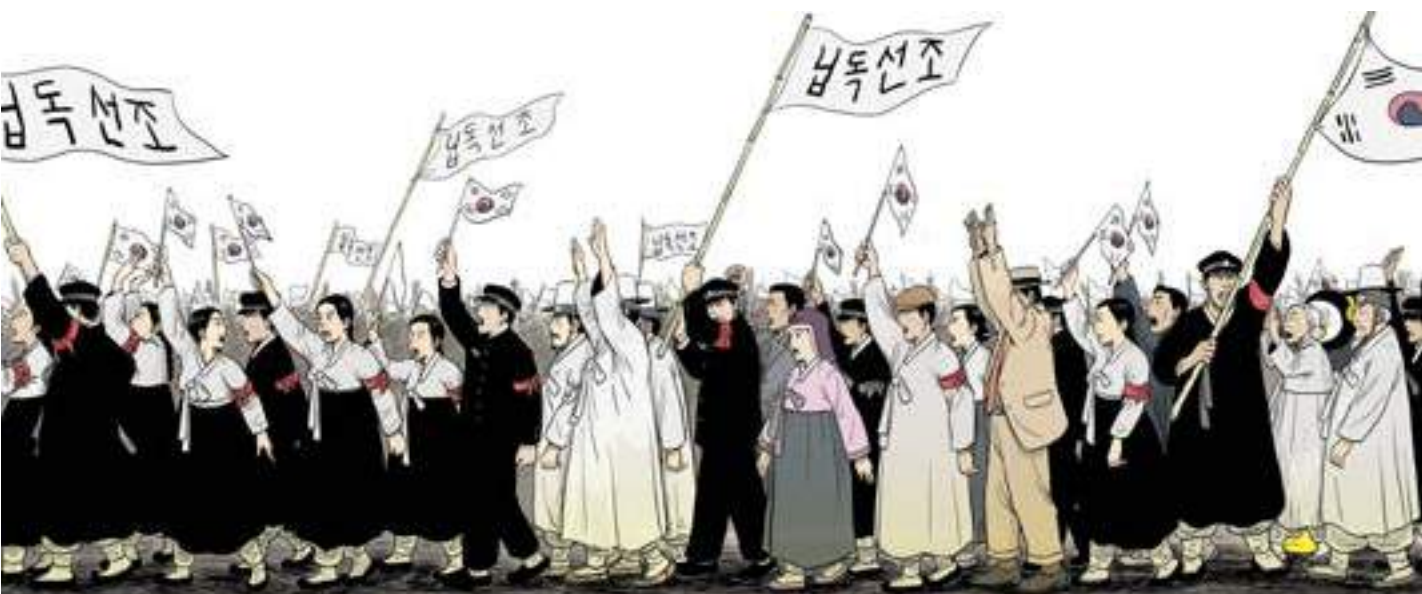
이어 독립운동가 웹툰 홍보영상을 감상하고 웹툰 속에 등장하는 핑수를 찾아 인증샷을 올리는 ‘독립운동가 웹툰 속 핑수를 찾아라’ 이벤트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견인차역할을 했다. (작품에 숨은 핑수 이미지들) 이외에도 성남문화재단은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와 함께 제한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홍보의 노력을 이어나갔다.

<위대한 시민의 역사>, <위대한 시민의 문화>라는 계단을 올라서면 마지막 3차 완성의 계단인 <위대한 시민의 평화>를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가 맞게 될 ‘평화’를 주제로 한 3차 프로젝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남북 합작으로 작품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남북의 상징적 애국소녀인 유관순과 동풍신을 묶어 작품화하는 것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두 분은 3·1운동 당시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만세 투쟁을 이끌었으며, 10대에 순국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차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기록하여 기억하는 것을 넘어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민족통합이라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완전한 자주독립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다만 독립운동가 웹툰가
독립운동가 웹툰가



독립운동가 100인_ 웹툰프로젝트의 ‘길’

기획 | 역사로 문화를 그려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2018년 시작되었다.
웹툰추진단 이도현 단장은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대중 콘텐츠로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단일 콘텐츠 최대 규모인 이 프로젝트의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이도현 단장을 만나 2년차를 맞게 된 감회를 들어보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는데 궁금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쓰고 그려낼 작가분을 찾는 일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삶이 작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하고, 작가분들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시대의 역사와 인물 자료조사를 병행하며 작업하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웹툰추진단은 최선을 다해서 작가분들의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3년이라는 기간에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첫해에 비해
2년차에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좀 더 시스템화되고 매뉴얼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토대를 만들고 대를 세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가 독립운동사를 통한 시민의 역사의식 고취가 주제였다면, 2차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복원이 주제입니다. 이 땅의 문화예술인이 사회에 대한 환원의식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선열들이 열망했던 한반도평화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을 만화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는 시민의 심장이 되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의 보람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2006년 만화작업 때문에 한 시인의 생애를 찾던 중 어느 독립운동가의 처연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선열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활동 사항, 논문, 평전과 답사기록 등을 찾아보고 다시 웹툰 콘텐츠로 재발굴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이현세 선생님과 이상훈 작가가 함께 만드는 김하락 의병장 이야기 <바스락>입니다.

구한말 을미년에 가족을 두고 남한산성 의병에 나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 중엔 열 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 영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지만, 아버지 김하락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영덕에서 전사했던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의병장 가족이란 이유로 일제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전국을 유리걸식하며 떠돌게 됩니다. 열 살이던 딸 영규는 어느덧 1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예전 부하로부터 아버지 김하락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시신을 몰래 수습하던 중 아버지 김하락이 전장에서 기록한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제로부터 쫓기던 영규는 어느 의병집에 3년을 숨어서 아버지의 일기를 아주 작은 책에 한 자 한자 옮깁니다. 일제로부터 쫓기던 영규는 더는 국내에 있을 수 없어서 만주로 피신하며 모필한 아버지 일기를 의병 집 안주인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주길 당부하면서, 일기를 맡은 집주인은 그 일기를 품속에 간직한 채 해방이 되고,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규를 기다립니다. 집주인의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영규가 돌아오지 않자,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의성김씨 문중에 김하락 의병 일기(정토일록)를 전달하여 보관하게 된 사연도 함께 알립니다.

남한산성 연합의병에 참여했던 김하락 진중일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연입니다. 그 후 저는 김하락 의병장의 따님 김영규의 후손을 지속 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2년 동아일보에 실린 김하락 의병장 추모기사 밑에 따님 김영규의 소식이 한 줄 쓰여있었는데, “만주로 갔던 딸 영규는 일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국난이기도 했지만, 가족사이기도 합니다. 그 후 알게 된 김하락 의병장 따님 김영규는 독립운동가 정내봉과 결혼하고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남편 정내봉이 전사하자 함께 전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하락 의병장 이야기는 현재 EBS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바스락>이 김하락 의병장 이야기입니다. 김하락 의병장 이야기는 애니메이션과 영화까지 염두에 두고 기획했어요. 현재 애니메이션과 OTT영화로 연결하는 중입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독립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까지 맞서 싸운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었지요. 이제 남과 북이 만나서 함께 싸웠던 선열들의 이야기를 밤 새워 할 때라 생각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겐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 웹툰을 통해 대중 그리고 독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될 3년차를 앞두고 계신
지금의 감회 그리고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성남시민이 만들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시민의 역사인 것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 작가들이 전례 없이 모여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는데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을 많은 사람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전시가 어렵게 되었지만, 가능한 해외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세계 수많은 곳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브라질, 쿠바,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우리의 선열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활동한 나라를 보면 세계 지도가 그려집니다. 언젠가 항거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분단의 장벽인 판문점에 모여 잘려진 허리 잇기 평화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끝까지 달릴 계획입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의 큰 의지와 성남문화재단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심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성남시민께 자존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웹툰산업과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100번째 독립운동가를 남북 웹툰작가와 함께, 그리고 온 겨레가 함께 보는 상상을 하면...

글 이재식_씨엔씨 레볼루션 대표/성남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자문위원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나는 만화로 밥 먹은 지 26년째인데, 때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심산으로 이런 말을 한다. 만화로 업을 삼았다고 해도, 만화를 보는 것을 밥 먹듯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일쑤이다. 만화라니 자기 경험과 서둘러 동일시해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데, 그렇더라도 호기심은 웹툰에서 비롯된다. 바야흐로 웹툰 시대이지 않은가?





『대한민보』 창간 호 1면에 실린 삽화

만화가 웹툰이 됐다. 만화가 디지털 시대에 웹툰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분야 오피니언 리더 다수는 둘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 만화는 만화이고, 웹툰은 웹툰이란 것인데, 이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10대와 20대들한테는 만화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이들에게는 웹툰이 책으로 나와도 웹툰이다. 일본의 망가(만화)를 번안한 만화책이나 학습만화 정도가 만화 자리에 남아 있다. 웹툰 독립시대이다.

성남시에서 지난해 시작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참 뜻깊은 사업이다. 지난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작했던 사업이 당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돼 놀랍다. 3·1 운동이 100년을 맞은 역사적인 해라 사업의 동기를 끌어냈지만, 사업이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다행히 첫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일차로 33인의 독립운동가의 삶과

투쟁을 그린 웹툰이 나왔다. 올해도 33인의 독립운동가가 웹툰 플랫폼에 오르고 있다. 내년엔 34인으로 100명을 채우게 되는데, 마지막 1인은 북한의 만화가와 같이 그리는 구상을 하고 있단다. 어찌 이런 상상을 했을까. 내년 100번째 독립운동가까지 상상한 대로 그려지길 고대한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웹툰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웹툰 독립시대라고 했는데, 웹툰이 만화로부터 한 장르로 독립했다는 것은 웹툰의 역사를 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진짜 가치는 일본의 ‘망가’로부터의 독립이다. 웹툰은 디지털 만화의 가장 강력한 표준(Global Standard)이 되고 있다. 우리가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에서 보는 웹툰이 그 형식 그대로 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이미 세계 100여 나라에 나가 있다. 중국은 우리 웹툰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편집지침, 말하자면 편집 철학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는 편이다. 독립과 관련되는 것은 물론 ‘망가’이다. ‘망가’는 웹툰 이전에 만화 세상의 기준이었다. 세계 만화시장의 65%가량이 ‘망가 영토’였다. 우리 역시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다. 이런 땅을 뒤엎고 디지털이란 새 판을 깔고 웹툰을 움 틔웠으니 독립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카카오가 일본에서 작심하고 띄운 웹툰 플랫폼 픽코마는 ‘망가’의 한복판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충격을 줬는데, 올해 여름부터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을 통틀어 정상에 올랐다.

우리 만화의 역사를 더듬고 올라가면, 만화가 시작된 시기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던 때와 겹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1909년,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때, 이해에 대한민보가 창간되고 이 신문 첫 호 1면에 실린 ‘삽화’가 우리 만화의 효시이다. 작가는 이도영 화백. 우리 만화의 시작은 신문 만화로, 이는 미디어 역사에서 미국에서도 신문 매체에서 만화가 시작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활자시대에 만화는 선전 매체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민족지를 표방한 ‘대한민보’가 첫 면에 창간사를

만화 형식으로 발언했는데, 당시로서는 신문 1면 한가운데 만화를 배치하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웹툰의 역사는 20년이 채 안 된다. 2003년 포털 다음에서 연재한 강풀의 <순정만화>를 웹툰의 시작으로 본다. 웹툰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2010년 전후의 시기다. 2013년엔 유료 웹툰이 본격 실험되고, 이듬해에 네이버는 라인 브랜드로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그래도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있었다. 이야기의 문제, 즉 재밌는 서사를 기획하고 이야기와 그림 언어를 맛깔스럽게 버무려내는 건 보통 솜씨로는 어렵다. 일본은 뛰어난 인재들이 만화산업으로 모여 프로듀싱 체제를 만들고 전문만화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했다. 또 시장에서 철저하게 인기순으로 작품을 검증했다. 우리는 디지털에서 넓은 인재 풀을 두고 재능 있는 작가와 작품을 선별했다. 대기업 플랫폼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인기를 검증받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이야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 웹툰 생태계와 일본 '망가 시스템'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다.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콘텐츠 창작과 유통, 특히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이 없이

철저한 하위문화로 산업적으로 성장했다. 성남시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일이다.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목적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는 웹툰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 플랫폼은 어디인가? 이야기는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재미있느냐?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마침 성남시는 세계적인 웹툰의 메카이다. 웹툰을 처음 만들고 실험해서 세계에 퍼뜨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 페이지가 같은 이름의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본거지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다. 이런 여러 조건과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마지막 해 사업을 앞두고 있다. 꼭 바라는 일이다.

내년에 나올 34명의 독립운동가는 성남시가 품고 있는 강력한 웹툰 플랫폼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 단순히 상업물이 아닌 한국의 정신을 담은 고유한 문화콘텐츠로서 거대 플랫폼에서 전격, 100인의 작품이 대대적으로 실리게 된다면 독립운동가들에게서도 다시 이곳에서 춤을 추실 것이다.

또 상상한다. 마지막 100번째 독립운동가를 남북한 작가가 공동으로 그려서 온 겨레가 함께 보는 상상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1차 완성본인 33편의 웹툰 작품 출판물

독립운동가 웹툰, 책으로 그리고 AR로 새롭게 태어나다

웹툰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중심에 서서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자유롭게 변화한다. 2020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다채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 독립운동가 33인 웹툰을 책으로 발간



성남시는 광복회와 “민족정기와 독립정신 선양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3개년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1차 완성본인 33편의 웹툰 작품을 출판물로 제작·지원했다. 출판 원고 제작, 디자인, 편집 등은 광복회,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협업 추진하여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국 서점에서 독립운동가를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14곳 공공도서관에 33명 독립운동가 만화 전집을 비치해 시민 독서를 장려했다.

독립운동가 AR 체험존

올해 6월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이용해 증강현실(AR)기술을 활용, 김구 선생, 여성 대표 독립운동가 정정화, 성남 출신 독립운동가 남상목 3인을 복원해 성남시 AR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독립운동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성남시청 로비와 광장에서 독립운동가 3인을 3D 캐릭터로 직접 만나 이들의 다양한 동작과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번 AR 체험존은 이후 <AR기반 독립운동가 캐릭터 거리와 박물관>을 마지막 종착지로 두고 시행되었다. AR 독립운동가 박물관은 그동안 수장고와 책 속에만 박혀있던 독립운동사를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살려 시민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이다.



연택트 공공 콘텐츠로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 최근 문화계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IT 기술을 활용한 ‘연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가 작년부터 추진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2020년에도 연택트 공공 콘텐츠로서 시발점이자 선례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독립운동가 웹툰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4차 지식기술이 연계한 공공의 콘텐츠로서 공공성과 시대성을 모두 획득하였다.



펍 하



페이스북으로 참여하기
인증샷을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기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하기
인증샷을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기

▶ Hint!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독립운동가 웹툰 펍수
홍보영상>**을 시청하면
**펍수가 등장하는 웹툰
장면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바스락>_ 이현세 작가를 만나다

독립운동가의 또 다른 ‘소리’

글_이유림 사진_남덕우

작가탐방 | 남한산성 김하락장군을 그린 이현세 만화가



2020년,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가 2년차를 맞게 되었다. 새로운 33인의 독립운동가가 결정되고 그분들의 삶을 웹툰에 담아낼 작가진이 꾸려졌다. 그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이현세 작가였다. 1978년 ‘저 강은 알고 있다’로 데뷔해 대한민국 만화의 역사를 다시 쓴, 굴곡 많았던 대한민국 만화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그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김하락 장군의 삶을 판타지로 재조명한 ‘바스락’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프로젝트에 작가님이 참여하신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아졌습니다. 프로젝트 참여게기가 궁금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담아내는 작업이기에 그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가족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일본군 순사에게 총살당해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만주에서 어렵게 사시기도 하셨고요. 일제 강점기에도, 6·25와 관련해서도 가족사가 얹혀있다 보니 기존에도 다른 작가들보단 시대극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끼신 어려움이나 감회 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천편일률적인 역사인물 스토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김하락 장군의 딸 영규가 10살 때 전사하셨는데 영규가 아버지 시신을 찾기 위해 남장을 하고 9년을 찾아 헤맨 끝에 시신을 찾아 이장을 하고 북만주로 망명을 했다는 기록을 찾게 되었어요.

10살 딸이 남장을 하고 아버지 시신을 찾아 전국을 헤맨다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포인트를 아버지와 딸에 두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초반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상세하게 풀었는데 한편으론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게 요즘 웹툰의 특징인데 다소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딸의 애절한 이야기를 판타지로 엮으면서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했는데 판타지 중에서도 요괴나 귀신의 세계를

끌어들이 이유는 한국의 잃어버린 귀신이나 요괴를 살리고 싶어서예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나라의 기본적 정령, 귀신의 존재를 문화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미신이란 이름으로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첫 작업을 한 것이니 <바스락>은 저로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어떤 면에선 이현세의 노인과 아이를 위한 동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동화, 아버지와 딸을 위한 동화요.

김하락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생각에 잠긴 뒷모습을 보는데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작가님이 바라본 김하락 장군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죽음을 앞두고 결전에 나서는 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비장함 때문일 겁니다. 자기 목숨뿐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얹혀 있고 게다가 아군보다 훨씬 강한 적군을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김하락 장군은 한마디로 딸 바보에 선비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이 땅에서 양반으로 태어나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기에 이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실행하셨고 내 후손들에게 옛날 오랑캐에 짓밟혔던 참혹한 현실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봉기하신 분이세요. 선비정신과 화랑정신이 함께 있으시다고 봐야겠죠?

<바스락>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목이 ‘바스락’인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영혼이 오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문밖에서 바람소리만 나도 혹시 누가 왔나 하고 내다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기별, 소식, 바라는 것들이 이 ‘바스락’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옛 시조에서도 그리움과 염원을 ‘소리’로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작품 속에서 귀여운 귀신 3명이 영규에게 나타날 때도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내며 나타나요. 영혼의 소리 중에서도 그런 귀여운 소리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66

〈바스락〉은 저로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어떤 면에선 이현세의
노인과 아이를 위한
동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동화,
아버지와 딸을 위한 동화요.

99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역사인물을 담는 일은 중요한 만큼 언제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 하고 그 고증을 바탕으로 상상력의 비중이 작품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작가적 상상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흥미롭고, 재미있고, 새롭게 표현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김하락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알리는 것보다 김하락 장군에 대해 동경과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세한 정보는 관심만 있으면 직접 찾아보게 되니까요. 저는 '이런 분이 있었다'라고 알리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당시 나라를 빼앗긴 현실 앞에 독립운동가들은 죽음을 내걸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 벽 앞에서 과감히 자신을 내던지고
독립운동을 선택했던 그분들의 심정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비장한 심정이셨겠죠. 뭐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지키지 않으면 뺏긴다는 그분들의 각성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본인들이 받아 온 혜택도 앞으로 자녀들이 받을 자유와 평화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 내가 싸워야 한다는 심정.



이현세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만화가 데뷔(1979),
한국 만화가 협회 회장
(2005~2007),

『공포의 외인구단』,
『남벌』, 『아마게돈』,
『천국의 신화』 외 다수 작품



작가탐방 | 남한산성 김하락장군을 그린 이현세 만화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만주땅 백두산이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당시 무능한 조정을 믿을 수 없었고 외세에 항거할 수 있는 건 자기들의 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신은 지금의 촛불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실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충효 정신이 기본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때는 나보다 가족, 가족보다 마을, 마을보다 국가의 가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한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웹툰 프로젝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떤 작업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니만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에도 다양한 홍보의 노력들을 하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출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눈빛은 시시각각 달라졌다.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이었다가 순수한 소년의 눈빛이었다가 영혼의 소리 ‘바스락’을 표현할 때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러다 유독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날카로워졌다. 그 눈빛에서 그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쏟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정성과 기대, 염원을 안고 출발했던 3개년 프로젝트는 이미 중반을 넘어 마지막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아름답고 거대한 프로젝트가 다다를 종착지, 그곳에서는 남북이 함께 울리는 100년의 함성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한다.



66
 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실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충효 정신이
 기본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때는 나보다 가족, 가족보다
 마을, 마을보다 국가의 가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한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99





66

어머니는 왜소한 체격과는 달리 굉장히 당차신 분이셨어요. 평생을 독립운동가의 딸 그리고 본인이 독립운동가이신 것을 자부심으로 사신 분이셨어요.

99



지복영 선생님은 한국광복군 지청천 장군의 딸이

자 본인 스스로 광복군에 지원해 임시정부의 여군이자 여성 광복군으로 활동하신 분이세요. 이분을 어떻게 웹툰에 담아야 하나 자료조사를 하면서 막막한 심정으로 관장님을 뵈었어요. 관장님께서 지복영 선생님이 살아오신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만주일대를 돌아다니고 고충과 광복군이 된 결정적인 계기 등 다사다난한 삶에 대해 들으며 작업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 역시 우리의 지난 역사와 인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족 대대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웹툰 작업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장현진 작가와 함께 이준식 관장을 만나기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그는 현재 천안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어머니를 그려낼 작가에게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궁금했다.



작가님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는 왜소한 체격과는 달리 굉장히 당차신 분이셨어요. 평생을 독립운동가의 딸 그리고 본인이 독립운동가이신 것을 자부심으로 사신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지청천 장군의 딸이 왜 저래? 여성광복군이 왜 저래?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애쓰셨고요. 어머니가 광복회에서 쓰신 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남녀평등에 대해 말씀



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지금 여러분들이 남녀평등을 얘기하는데 여성이 남성과 같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평등을 주장할 수 있겠냐 권리로써 평등을 주장하려면 여성도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같은 광복회의 오광심 여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일종의 시대정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당시 광복군이 출범하면서 여성도 입대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는데 여성분들이 단채로 입대를 하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받아주었던 임시정부도 대단했지만 당시 여성으로서 입대를 결정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독립운동을 전공한 아들에게 어머니의 삶이 웹툰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역사가들은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알리는 일은 역사가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대중화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한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방법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바로 웹툰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소재로 좋은 웹툰을 만들어서 대중이 역사에 대해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침 그 작업에 저희 어머니가 선정되었으니 자식된 입장에서선 반갑죠. 어머니가 포함 안 돼도 반길 만한 일인데 포함되었다고 하니 더 반갑고 기대가 큼니다.



66
 단장님의 말씀이
 저에겐 답이 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지복영 선생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위대한 인물을 그려내는 일은
 설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99

실존인물을 담는 작업, 게다가 독립운동가다. 인간이 거대한 산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경외감은 곧장 두려움으로 변하곤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롭게 재탄생되는 여정에서 작가들이 마주했을 두려움이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사실, 실존 인물로 작업을 하다보니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에만 기반해야 할지 아니면 웹툰이니 어느 정도 픽션을 가미해도 될지, 가미해도 된다면 각각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도헌 단장님께 고민을 말하고 여쭙봤어요. 단장님의 말씀이 저에겐 답이 되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지복영 선생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위대한 인물을 그려내는 일은 설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작가적 상상력과 역사적 고증 사이에서 작가는 늘 외줄을 타는 심정이다.



작업을 하면서 지복영 선생님의 자서전인 '민들레의 비상'을 주로 참고했어요. 책 한 권에 담긴 그 삶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저 시대,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내 나라 하나 없는 기분은 어떨까?' '책 안에서 술하게 등장하는 독립운동가들처럼 나 역시 강한 의지로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를 위해 외칠 수 있을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지복영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운동가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셨는지 깨달아졌어요.



66

새로운 100명의
독립운동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운동 역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립운동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



이준식 관장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이야기했다.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는 뿌듯함과 부끄러움이 늘 공존하고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기억하고 이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 ‘민족 통합’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한편으론 뿌듯하고 한편으론 부끄러워요.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민주, 평등,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도 사회적 평등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

졌잖아요. 그 면에서 뿌듯한데 다른 한편으론 아직도 민족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돼 있으니깐요.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채를 갚는 방법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통합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성남시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여쭙었다.



아주 소중한 작업이고 이 소중한 작업이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신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어디선가,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 프로젝트가 워낙 큰 성과를 낸 사업이었으니 내년에 3차로

66
 내년의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된 모습이 기대돼요.
 마치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9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내후년부터 또 다른 새로운 100명의 독립운동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운동 역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립운동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의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전체 프로젝트가 완성된 모습이 기대돼요. 마치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 한 분 한 분께서 신경 쓰시고 프로젝트를 위해 이모저모 너무나 애써주신 추진단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준식 관장을 만난 후 장현진 작가와 함께 조선총독부철거 부재 전시공원에 들렀다. 일부러 해가 잘 들지 않는 서쪽에 두었고 침탑을 지하 5미터의 깊이에 매장했다. ‘홀대하되 남기어 잊지 말자’는 의미다. 그 모습을 스케치하는 장현진 작가 위로 초겨울의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웹툰 디렉토리

33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Independence activists

36	강우규	성주삼	58	방정환	이빈	80	전월선	정미진
38	김규식	환쟁이	60	백정기	김유정	82	전협	김준범
40	김동삼	최장군, 송장군	62	부춘화	임소희	84	전형필	노미영
42	김영랑	나병재	64	성기석	김용길	86	정세권	최윤열
44	김우전	강호면	66	안창남	박찬섭	88	지복영	김유
46	김좌진	하마탱, Q-Ha	68	안창호	지강민	90	최현배	장우혁
48	김하락	이상훈, 이현세	70	여운형	최훈	92	한도신	이해경
50	김향화	Alcor	72	연미당	김달님	94	한형석	배진화, 김기백
52	남자현	南風, 이슬	74	오광심	이아영	96	현계옥	우장순, 원혜진
54	박은식	홍연식	76	유일한	최금락, 이세경	98	호머 헐버트	최해솔, 고태야
56	박희광	력키나인	78	이위중	김나경, 래시	100	후세 다쓰지	김한조



푸른 노인

강우규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강우규 1859-1920
서훈: 대한민국장(1962)

의사는 6개의 학교와 3개의 교회, 노인단 1개와 민회 2개를 조직, 문화계몽사업에도 진력하였고, 만주 노령(러시아 영토)에서 3·1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5월에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총독 암살을 결의하고 폭탄을 구입해 두었다가 9월 2일 총독이 도착하는 날, 명주 수건에 싸서 지니고 나가 군중 속에 있다가 귀빈실 입구에서 나와 마차에 타려는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이 총독의 7보 앞에 떨어져 순사와 신문 특파원 2명이 사상하였으나, 총독의 암살에는 실패하였다. 1920년 11월 29일, 향년 65세로 서대문형무소 형장에서 처형되었다.

작가

글, 그림 **성주삼**

주요작품 ‘우당탕 세자매’로 데뷔(1994), ‘칼의 땅’(2014~2018), ‘주막’(2018) 외 다수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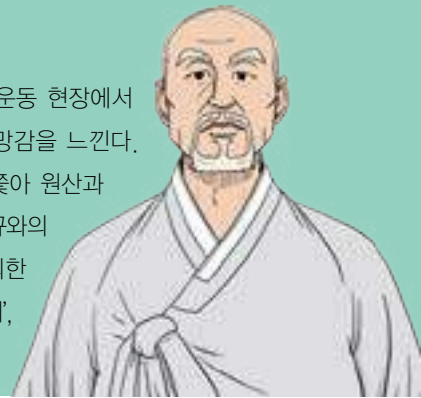
식물의 잎에서 엽록소가 빠져나갈 때, 단풍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명을 다한 이 마지막 불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요. 삶을 푸르게 불태운 강우규 의사는 생을 다하는 최후의 한순간까지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어느덧 왜곡된 이미지로 변질된 몇몇 인식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들을 일부 꿈아 작업에 녹여보았습니다.

몇몇 잘못쓰임에 의해 잃어버리고 있는 평판, 마땅히 존경 받아야 할 권리를 말이지요.

시놉시스

의사 이산하는 동의는 하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치료 목적으로 합류했던 3·1운동 현장에서 희망을 느끼지만, 동시에 고문과 수감, 수많은 희생을 목도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신애와의 만남을 통해 일시적인 자존감 회복과 해방감을 느끼고, 그녀를 쫓아 원산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까지 이른다. 인연을 통해 많은 이들의 독립 의지를 배우고, 강우규와의 동행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신임 조선총독 암살을 결의한 강우규는 폭탄을 투척하고 붙잡히게 된다. 그 영향으로 이산하는 '강우규 의지를 이어가기', '진화하는 독립 운동'에 몸을 투신한 것을 결심, 경성을 떠나 대한독립군에 합류한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합작을 꿈꾸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



김규식 1881-1950

서훈: 대한민국장(1989)

“본래 우리의 독립은 평화회의나 모종의 유력한 단체로부터 승인을 받던지, 첩지를 내어 주듯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최고기관으로부터 각 단체 또는 전 민족의 합심과 준비 여하에 달렸나니,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독립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을 따름이요. 고로 금일 우리 민족은 그 멸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요.”

—“1921년 1월 상해 환영회 석상에서의 연설” 중에서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였고, 이어 임시정부 학무총장, 부주석 등을 지냈다. 8·15 광복 후 신탁 통치와 남한의 단독 총선에 반대하고 김규와 함께 남북 협상을 시도하다가 정치에서 은퇴하였다.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작가

글, 그림 **환쟁이**

주요작품 ‘기사도’로 데뷔(2012), ‘악익는 없다’(2015)

작가의 한마디

김규식 선생님은 한일병탄부터 6·25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정면으로 뚫고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대한의 근대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한 위인의 시각으로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만화가 독자분들에게 김규식이라는 위인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놉시스

1921년 11월 하순 극동민족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천진역을 출발했던 김규식 일행은 밀정으로 인해 철로 여행을 포기하고 외몽골을 관통하는 육로를 통해 러시아에 무사히 도착한다. 다행히 레닌의 원조 약속을 받고 상해로 돌아와 김규식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려 하지만, 세력다툼으로 인해 무산된다. 설사가상으로 스탈린은 그전 레닌의 약속을 무산시키고 김규식 일행은 러시아에서 축출당하고 만다.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던 김규식은 이후 좌절하지 않고 만주사변, 임시정부수립, 해방, 종전, 6.25 전쟁 등 역사의 현장을 빠르게 뛰어다니며 통일을 위해 힘쓴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도착했다.





한평생을 혁신과 통합에 몸을 내던진 독립운동계의 거두,
만주벌의 호랑이라 불렸던 사나이. 일송 김동삼.



김동삼 1878-1937

서훈: 대통령장(1962)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 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7년 옥고 끝에 옥중에서 순국하시기 전 남긴 유언” 중에서

국권이 강탈되자 만주로 망명하여, 1918년 김좌진 등과 함께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참모장 등을 지냈다. 재만 동포의 권익 신장에 힘썼으며, 1931년 만주 사변 때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작가

글 최장군

경력사항 전국시사만화협회 부회장(2012~2014),
한국만화정책연구소 사무국장(2017~2019)

주요작품 ‘우당탕탕보루’로 연재(2003),
‘만화 장영실’(2010), ‘카툰공감’(2019)

그림 송장군

경력사항 부산1회 ‘글로벌웹툰쇼’ 사무국장(2016),
BOF(원아시아페스티벌) 웹툰전시 총괄
큐레이터(2017)

주요작품 ‘리모델링보이’로 데뷔(2001),
‘망상소년’(2013), ‘백귀’(2015)

작가의 한마디

최장군 모든 걸 내려놓고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안동 내앞마을에 살았던 200명의 혁신 유림은 척박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주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업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망명을 하는 것이지요. 김동삼의 일생을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환경으로 만들어진 영웅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며 영광된 순간이었습니다.

송장군 병으로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격동의 1920년의 만주. 그 느낌을 오롯이 낸다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스토리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먹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이름 없는 만주의 어느 벌판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젊은 영웅들의 모습이 독자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놉시스

서대문형무소 수형 번호 730번 병든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일송 김동삼이다. 형무소 동료들은 그의 기세와 당당함에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대하며 지난 시절 김동삼의 한일투쟁에 대한 업적을 듣게 된다. 협동학교 시절 신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 혁신유림으로 거듭난 이야기, 백서농장을 운영하며 독립군을 양성한 시절, 그리고 마지막 수감되어 죽어가는 순간까지 독립운동계의 통합과 한인 생활 안정에 헌신한 삶을 듣게 된다.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그는 만해 한용운에 의해 장례를 치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선생이 노래한 우리 겨레, 우리 조국을
유미주의 작가의 손에서 다시 해석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김영랑 1903-1950
서훈: 건국포장(1995)

1919년 3월 25일 전남 강진군 강진면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김현상, 김현균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언도 받았다.

1930년대 「독을 차고」, 「가야금」, 「달마지」, 「춘향」 등의 시를 발표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작가

글, 그림 나병재

경력사항 '영점프 신인만화 공모전' 당선(2001), 동아 LG 국제 카툰 공모전 대상(2008)

주요작품 '굳세월아 군바리'(2001), '나두야 간다'(2005), '막물리에'(2010)



시낭독

김영랑 시인은 유미주의적 내심을 지닌 문인으로 청년 시절부터 일제의 탄압에 지조를 굽히지 않은 민족시인이다. 김영랑의 대표적인 시를 소재목으로 삼고, 각 시에 맞는 상황과 에피소드를 버무려 시인의 일대기를 그렸다.



기무전

機務戰

독립운동가 김우전 선생을 모티브로 한 SF 판타지



김우전 1922-2019

서훈: 애국장(1990)

1944년 5월 15일 광복군에 입대하여 제3지대 창설기간요원으로 활약, 연합군 연락장교로 파견 활동을 하였다.

1945년 3월 한미공동작전계획(O.S.S훈련) 실천방안 마련의 주역으로 역할 O.S.S본부에 파견 광복군 무전기술 교재와 한글암호문(W-K암호)을 제작하였다. 이외 김구 주석의 기요비서로서 국내 애국지도자와 연락하며 공작 활동을 하였다.

작가

글, 그림 강호면

경력사항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with 일러스트로 데뷔(2018), 모바일 게임 머지레이서, 명탐정s의 원화 및 컨셉일러스트, 리버앤드스타 카툰 및 각종 광고영상, 일러스트 제작
주요작품 '배럴'(2018), 전시영상 적입 및 광고영상제작



작가의 한마디

“김우전 선생님을 슈퍼맨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호기롭게 만화의 서두를 다짐했던만 선생님을 가까이서 제일 잘 아는 후손분과의 인터뷰로 모든 시나리오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우전 선생님의 업적보다는 선생님의 주변 인물들과 아쉽게도 조명되지 않았던 동지들 그리고 “누구나 다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과 함께 더듬더듬 어둠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 머리를 싸매고 눈물을 머금으며 차분히 밝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원고를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허투루 그려낼 수 없었기에 고통스러웠던 역사는 기록될 테지요. 분명 잘하고 있는 거겠지요, 민족 반역자들이 득세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아쉬워하셨던 자주독립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온갖 상상력들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작품으로 소중히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놉시스

어느날 에너지가 담긴 수정을 가지게 된 백범 김구 선생의 기요비서 김우전은 왜곡된 미래를 바로잡기 위하여 김구 선생님과 미래로 향하려 하지만 일본의 자객들의 방해로 '네오경성'의 다른 시간대의 미래로 떨어지고 만다. 김우전이 염원하던 대한민국 자주독립 작전인 '독수리 작전'이 불발로 이어지고 미래의 민족 반역자들이 과거로 가게 되면서 그들을 쫓아 과거로 가게 되는데... 과연 김우전은 그들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청산리

독립전쟁

절망적인 열세에도 굴하지 않고 싸운 독립군과 민초들.
영웅들이 지켜낸 대의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묻는다.



김좌진 1889-1930

서훈: 대한민국장(1962)

일제강점기 군인이자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당시 동만주 왕현에서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활동했다. 사관연성소를 설치하여 독립군 간부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20년 9월 나중소, 이범석 등과 더불어 청산리전투에서 10배의 왜적을 대파하여 3천3백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30년 1월 24일 산시참 정미소 격려 도중에 박상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순국하였다.

작가

글 **하마탱**

주요작품 '하마탱의 일편단심 하여가'로 데뷔(2009),
'쌍남자'(2014~2015),
'뚜디앤쭈디 짜투리개그'(2016~2017)

그림 **Q-Ha**

경력사항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2009),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역사'(2015),
'노랑해전'(2016)

작가의 한마디

청산리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작업이었고, 그 안에서도 나름의 만화적 재미와 장르적 쾌감까지 넣어보고자 저희 작가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작품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까지 많은 독자와 만났으면 합니다.



시놉시스

훈춘 사건 이후 더욱 잔인해진 일본군의 학살이 벌어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독립군은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진다. 김좌진은 승산이 없는 전투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짐을 새기며 독립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장시켜 싸울 준비를 한다.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은 재치와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급습하고 혈투를 벌인다.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등 굵직한 일들이 지나가고 정미소에서 김좌진은 최후를 맞는다.



바스라

의병대장 김하락의 영혼이 일본 귀신들한테 잡혔다!
소녀 영규의 아빠 구출大作전!



김하락 1846~1896

서훈: 대통령장(1982)

1896년 경기 의병진의 도지휘 및 군사로서 경기도 광주의 장항 전투에서 왜병 100여 명을 사살하고 이어 남한산성에 포진하여 왜적을 물리치다가 마침내 의병장이 되어 안동, 의성 등지에서 10여 차례 걸쳐 격전 중에 순국하였다. 전기의병 초기 경기도 이천에서 창 의하여 경북 영덕에 이르는 대장정을 통해 불굴의 항전을 전개하였던 전투의병이었으며, 의병전쟁사상 최초로 서울진공작전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대장정 과정에서 각처 의병부대와 의 연합의병진을 결성하였다. 의병전쟁 전개 과정을 기록한 <진중일기>를 남겼다.

작가

글 이상훈

경력사항 '난타신검'(1999)로 데뷔,
주요작품 '난타신검'(1999)
'슈퍼대디열'(2013),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2017),
'초월'(2018), '닥터핸즈'(2020)

글, 그림 이현세

경력사항 만화가 데뷔(1979)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2000~),
아시아 만화인대회 특별상(1999),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만화부분 대통령상(2007)
주요작품 공포의 외인구단(1983),
아마게돈(1988), 천국의 신화(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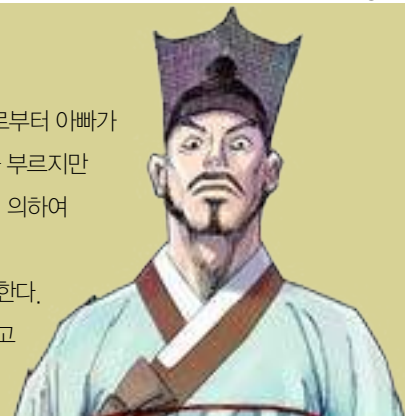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이상훈_ 수많은 독립운동가님들, 지워지고 잊혀진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세_ 변절하지 않는 것은 선비정 책무를 다 하는 것은 화랑정신. 내 할아버지는 만주사변 때 흑룡강 강변에서 일본 순사에게 피살당했다. 불과 100년 전 우리 땅이었던 만주는 이제 남의 땅. 국경은 언제나 변한다.

시놉시스

1900년 아버지 김하락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딸 영규는 가장 친한 친구 하운으로부터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신내림을 받은 하운은 소혼굿을 벌여 김하락 장군의 영을 부르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김하락 장군은 이승을 떠났지만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일본 귀신들에 의하여 몸이 잡혀 소멸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영주는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아빠를 구하기 위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아빠를 구한다. 이승에서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채 오해했던 영규는 다행히도 아빠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부녀의 정을 나누는 후 현세로 돌아온다.



근화향이 외쳤노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김향화,
그녀는 어쩌다가 독립운동가가 되었을까?



김향화 1897-미상
서훈: 대표영표장(2009)

1919년 3월 29일 경기 수원 기생조합의 김향화는 기생 30여 명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자혜병원과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했다.

김향화는 이날의 만세시위로 일경에 체포되었고, 1919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작가

글, 그림 Alcor

주요작품 '노스탈지'(2016), '너를 기억하는 길'(2019)

작가의 한마디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한편으론 경력과 실력이 부족한 제가 한 위인의 일대기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크게 걱정했지만 저는 저대로, 최대한 노력하여 알맞게 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근화향이 외쳤노라'를 그릴 때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접하고 많은 분이 '김향화'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저 또한 이 작품을 그리는 동안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 작품을 그려내는 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갈림길

46세의 나이에 만주로 망명하여 14년간 조국광복에 헌신하다 순국하신 여성독립투사 남자현 선생 이야기



남자현 1872-1933
서훈: 대통령장(1962)

만인의 귀감을 살 만한 인격과 효부, 열녀, 열사 등 지조와 도덕·예지와 의용 등 분야마다 뛰어났던 일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영을 위하여 싸우는 데 던진 그녀는 결국 옥고로 순국하였다. 그녀의 유언은 아래와 같다.

“만일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의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작가

글 **南風**
경력사항 충남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2017)
주요작품 ‘낙화’(2017), ‘자객’(2018)

그림 **이슬**
경력사항 아시아그래프 Best Work 상
주요작품 컨셉아트 및 일러스트 제작 다수

작가의 한마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맛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공기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까지도 망설임 없이 불사르셨던 독립투사 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얼빈의 차가운 땅 속 어딘가에 누워 계실, 아직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남자현 선생님의 귀향을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놉시스

남자현은 구한말 혼란 속에 의병으로 투신한 김영주와 사별한다. 이후 1919년 46세의 나이로 조국을 떠나 만주로 향하고 서로군정서에 몸을 담으며 독립운동가로 각성한다. 철혈의 독립투사로 성장한 남자현과 그런 그녀를 곁에서 묵묵히 돕는 백호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게 된다. 남자현은 김동삼을 구출할 거사를 홀로 준비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고 6개월간 모친 고초를 겪고 단식투쟁으로 풀려난다. 결국 남자현은 죽고 거사를 고발한 밀정 백호를 용서하는 편지를 남긴다.



태백광노소년들

박은식 선생의 저서에 영향을 받은 소년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박은식 1859-1925

서훈: 대통령장(1962)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주필을 맡아 애국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병탄 후 만주로 망명했고, 상해를 거쳐 연해주로 이동하였으며, 니코리스크에서 한인동포의 요청을 받아 잡지를 발간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안중근전』, 『건국지』, 『단조사고』, 『동명성왕실기』 등을 저술하여 대학자로서 애국사상을 계몽, 고취하는 불굴의 삶을 살았다.

작가

글, 그림 **홍연식**

주요작품 ‘불편하고 행복하게’(2012), ‘마당 씨의 식탁’(2015), ‘마당 씨의 좋은 시절’(2017), ‘마당 씨의 가족앨범’(2020)

작가의 한마디

힘겨운 타국에서의 독립운동과 저술 활동을 통해 국혼을 일깨우려 하신 박은식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당시 청소년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항일운동을 할까? ...라는 고민에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웹툰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놉시스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된 세상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박은식 선생의 저서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에 소질이 있던 서경은 만화를 통해 독립운동을 계획하지만, 친구 학선의 투쟁적인 행동에 상대적인 무력감을 느낀다. 3·1 운동 이후 박은식 선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집필하게 되고 이를 읽고 감명받은 학선은 홀로 남을 어머니와 동생을 보며 갈등하지만 결국 독립투쟁을 위해 홍범도 장군 부대에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서경 역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만화 전단을 배포하며 자신의 뜻을 담아 항일운동을 펼친다.



송곳니

타협과 굴복의 시대에 끝까지 굽히지 않던
한 남자의 이야기



박희광 1901-1970

서훈: 독립장(1968)

대한통의부 비밀암살단원으로 5중대 소속 3인조에 속해 있었으며, 임시정부의 특명으로 1924년 6월 일진 회원으로 국권침탈에 앞장섰던 친일파 앞잡이 보민회의 회장 최정규(崔鼎奎) 집을 습격했다. 만주의 친일단체 일민단, 보민회 등이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재만 동포를 위협하자 김광추의 지휘하에 특공대원으로 활약하며 이등박문의 수양녀이자 밀정, 매국녀 배정자(裴貞子) 암살지령 등을 수행하였다.

작가

글, 그림 렉키나인

주요작품 '키스하고 싶은 그녀', '어머니의 가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다수

작가의 한마디

1920년과 2020년, 1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깜깜한 나라를 살아가던 1920년 당시의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자니 지금을 살아가는 내 모습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를 전해 주신 박정용 후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놉시스

어린 박희광은 고향 밀양을 떠나 아버지를 따라 만주에 자리를 잡고 학교를 다니며 친구 김병현을 만난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아버지 친구를 찾아간다. 이리때의 습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배정자 일행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배정자의 청으로 의열단 김상훈과 접선하게 되지만, 김상훈은 친일 앞잡이였던 배정자의 함정에 빠져 박희광을 탈출시키고 본인은 죽음을 선택한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박희광은 임시정부의 새로운 임무를 받아 김광추, 김병현과 함께 친일파를 숙청하는 삼장사로 활동한다. 정체를 감춘 배정자가 김광추에게 접근하자 박희광 일행은 위험에 처한다. 가까스로 위험에서 탈출한 세 사람은 다시 뭉쳐 금정관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박희광은 19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홀로 광복을 맞는다.



작은 물결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 시절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독립운동 이야기



방정환 1899~1931
서훈: 애국장(1990)

1917년 비밀 결사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였고 '민족대표' 등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청년의 역할을 다함.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과 『독립신문』을 지하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 등으로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1920년 「어린이 노래」를 번역하여 소개하며 아이들을 존중하여 부르자는 의미의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10여 년에 걸쳐 소년운동과 청년운동, 민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그는 무리한 활동으로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만 31세에 짧은 삶을 마쳤다.

작가

글, 그림 **이빈**

경력사항 만화가 데뷔(1991), 오늘의 우리 만화상(2004),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대상 만화부분 우수상(2009)

주요작품 '안녕, 자두야'(1997~현재), 'ONE'(1999~2001), 'MANA'(2005~2009)



작가의 한마디

방정환 선생님의 독립운동사를 알게 된 것은 어쩌면 저의 운명이지 싶었습니다.

어린이 운동가로 널리 알려지셨지만 그 찬란한 빛에 가려져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숭고하고 희생적인 방정환선생님의 독립운동 활약사를 그려내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시놉시스

방정환은 천도교에 입문 후 독립운동가이자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가 되어, <조선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찍고 배포하는 등 활약을 펼치며 어린이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잡지 <어린이>를 펴내고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의지를 고취시킨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한 나머지 방정환은 병상에 눕게 된다. 병원 문 앞에 자신을 태우러 온 검은 마차를 본 그는 빈사상태에 빠진다. 이윽고 잠시 정신이 들자 부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유언을 남긴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다.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 선생의 인간적인 삶과 사랑을 그린 이야기



백정기 1896-1934

서훈: 독립장(1963)

“나의 구국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日帝)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함ियो,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를 타도 하여 자유·평화 위에 세계 일가(一家)의 인류공존을 이룩함이니 왜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 주시오.”

—백정기 의사, 1933년 3월 17일 중국 침략의 주범 중 하나인 주중 일본공사 처형에 나서기 전

1933년 주중 일본 대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작가

글, 그림 김유정

주요작품 ‘비밀의 화원’(2015), ‘빨간 TV’(2017), ‘윤태호편, 이후’(2017)

작가의 한마디

처음 이 웹툰의 기획을 받고 백정기 선생님의 일대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려진 큰 사건에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사신 백정기 선생님의 일대기에서 조금 다른 시점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절 힘든 삶을 한 인간으로서의 백정기 선생님을 담아보자 하여 현재의 웹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픽션이 많이 담긴 이야기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독립투사의 길로 가기까지 그리고 가고 나서 분명 많은 선택과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한 것을 사랑이란 소재를 써서 액션보다는 로맨스 드라마에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쪼록 한 인간으로서의 많은 망설임과 두려움이 필요한 선택을 택하고 또한 끝까지 그 선택의 길로 묵묵히 가 주신 독립투사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흔하지 않은 기획 주신 프로젝트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놉시스

관동대지진 혼란 속에 백정기는 일본의 만행을 목격하고 아나키스트로 거듭난다. 백정기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 앞잡이의 집을 탈취하고 도주 중 오랜 친구인 김호태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많은 일을 하다 백정기는 결핵에 걸리고 요양 하던 중 마시미라는 소녀의 고백을 받는다. 이를 단호히 거절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흑색 공포단을 만들어 밀정들을 처단한다. 마시미는 남몰래 백정기의 거사를 도우며 그를 여러 번 구해낸다. 1933년 일본 수뇌가 모이는 육삼정의 거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백정기를 쫓던 하시다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호태는 이 사실을 마시미로부터 듣고 육삼정에 뛰어 들어가 백정기 대신 총을 맞는다. 마시미 역시 백정기를 구하기 위해 총을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백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당한다.



해녀, 제주의 여신

나라보다 먼저 바다를 뺏겼던 제주의 해녀들,
그녀들이 이제 일어나 인간을 위해, 바다를 위해 싸운다.



부춘화 1908-1995

서훈: 건국 포장(2003)

1931년 일제의 수탈에 맞서 해녀투쟁의 기관을 창설하고, 투쟁체제를 정비하였다. 하도리 해녀들은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손에는 빗창(전복 따는 쇠갈고리)을 머리에는 물안경을 끼고 제주도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해녀들을 착취하는 일본인 도사(島司) 전구정희(田口貞熹)와 담판을 벌여 요구 조건을 관철하였으며, 동월 26일경 제주도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가 체포되어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작가

글, 그림 임소희

주요작품 '미묘한 이야기',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체류기', '요가툰'



작가의 한마디

작품을 준비하며 해녀 문화를 알면 알수록 제주도 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며 바다와 지역공동체 또한 함께 돌보았던 해녀들은 일찍이 바다에서 지혜를 배웠나 봅니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연인원 17,130명, 238회에 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여 일제에 대항했던,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만큼 영웅적인 투쟁을 이끌었던 수많은 제주 해녀들의 이름을 우리는 채 몇 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던 생전의 부춘화 지사님의 말씀처럼 많은 영웅적인 여성의 서사들은 이름도 없이 그저 헌신, 지극한 사랑, 공동체적 연대로 가득합니다.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김계석, 고차동, 또 많은, 아주 많은 분들께 오늘을 빚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농시스

부춘화는 하도리 바닷가로 떠밀려온 거북을 살려주며 '우리 가엾은 해녀들 지켜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빈다. 살려준 거북은 다음 아닌 요왕할망 말젓말 아기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요왕할망의 명을 받고 인간으로 변신해 물로 올라간다. 부춘화는 거북 구아에게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알려주고, 구아는 이들의 고된 삶과 야학을 통해 민족계급의식을 높이고 있는 젊은 해녀들을 발견하게 된다. 부춘화는 날로 더해가는 일제와 관제조합의 수탈과 횡포에 반란을 준비한다. 이를 처음부터 지켜본 구아는 파도처럼 분노한 해녀를 도와 투쟁하기를 선택한다.



메신저

messenger

일본에 유리한 방송만 허용되던 시절, 단파 라디오를 이용해 민족의식을 고취한 방송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성기석 1920-1990
서훈: 애족장(1990)

1938년 5월부터 1942년 12월까지 경성중앙방송국과 개성방송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단파수신기를 제작하여 해외방송을 청취하면서 임시정부의 소식과 구미외교부 활동, 연합국의 승전, 광복군의 활동, 국제정세 등을 민족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1942년 12월 27일 전모가 발각되어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출옥하게 되었다.

작가

글, 그림 김용길

경력사항 동아 LG 국제만화 공모전 입선(2002), 5회 전국 장애인 창작만화 페스티벌 금상(2003)

주요작품 '금도끼 은도끼'(2002), '도깨비 로봇'(2017), '금강산선 이야기'(2020)

작가의 한마디

내가 성기석 선생에 흥미를 느낀 부분은 자신의 위치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을 위해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돌볼 수 없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독립운동은 대단한 결심이자 희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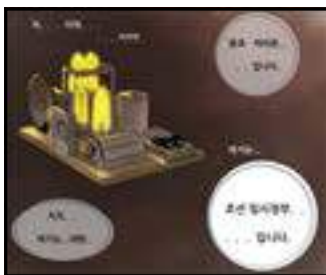
성기석 선생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이용하여 외국의 소중한 정보를 독립진영에 전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점은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생활 속의 독립군이 있었기에 최전선의 독립군이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놉시스

경성 방송국 지하실 창고에서 라디오 부품을 몰래 빼내 단파 라디오를 만들던 성기석은 일본이 패망하고 있다는 조선임시정부의 소식을 듣고 놀란다.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이인덕은 부품을 챙기던 성기석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단파 라디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일본이 패망한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 성기석은 이인덕의 청을 들어주고, 결국 해외정보를 들려줬다는 죄목으로 일제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다. 징역 2년을 살다가 해방을 맞아 출옥한다.



광풍은 아침내 불지않는다

하늘을 사랑한 안창남이 일본에서 비행기술을 배워 출세와 명예를 버리고 험난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이야기



안창남 1990-1930

서훈: 애국장(2001)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을 겪고 국내로 돌아와 1924~5년경 중국으로 망명해 북평에서 조선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여운형의 권유로 산시성의 태원으로 가서 염석산 산하의 비행학교의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상해에 본부를 둔 대한독립공명단에 가입하고 1929년 비행대의 설립을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공명단 단원 최양옥, 김정연 등에게 600원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22년 6월 동아일보의 초청으로 전국의 5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강호를 몰고 서울 장안과 여의도 상공에서 고등묘기를 선보였다. 1930년 4월 산서비행학교에서 비행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작가

글, 그림 박찬섭

주요작품 ‘뱀프X 1/2’(1995), ‘열풍지킴이전기’(1998), ‘SMACKER’(2005), ‘손오공의 무법탈출기’(2012)

작가의 한마디

안창남 비행사님께서는 알려진 대로 길지 않은 생애에서 조국의 동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지지받았던 신화와 같은 인물이었던 동시에 꿈많은 “청춘”이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결연한 독립의 의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 의심치 않아, 저는 안 비행사님의 비행에 대한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을 주제로 이 작품을 가능하면 팬시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운동가 웹툰인데 “레드” 컬러를 기반으로 채색을 했더니 “화투장” 같다는 반응들이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제 의도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 작품을 접하시는 독자분들이 너무 무겁지 않고 심플하게 즐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작업해 보았으니 제 매력적인(?) 화풍에 잠시 빠져보셨음 합니다. 그럼 즐기세요!

시놉시스

1922년 12월 10일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비행사 안창남은 '모국방문 대 비행회'에 참가한다. 화려한 비행술을 보여준 그의 공연에 이를 지켜본 관중들은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이듬해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연인 혜수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안창남은 자신의 뛰어난 비행기술 역시도 결국엔 '가미가제'로 소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고국의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대한독립공명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한 안창남은 마석고개에서 군자금탈취 목적으로 일본경성우편국 7호 차량을 기습하는 거사를 계획한다.



도산

안창호를 짝사랑한 한 소녀의 이야기



안창호 1878-1938

서훈: 대한민국장(1962)

“물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에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생략)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이외다.”

『동아일보』에 실린 “주인(主人)인가 여인(旅人)인가” 선생의 글 중에서, 1925.1.25.

신민회, 청년 학우회, 흥사단을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19년 3·1 운동 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였다. 1937년 일경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던 중 중병이 들어 이듬해 3월에 서거하였다.

작가

글, 그림 지강민

경력사항 시카프 국제디지털만화공모전 우수상(2008), SBA 서울 캐릭터 프로모션 & 피칭 공모전 우수상(2012)

주요작품 ‘와라 편의점’(2008), ‘매일매일 출근가족’(2015), ‘마이너스 1억소녀’(2017)

작가의 한마디

너무도 유명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웹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한 여학생의 시점에서 바라본 독립운동가이면서도 훌륭한 스승이기도 했던 학교 선생님 안창호의 일상을 그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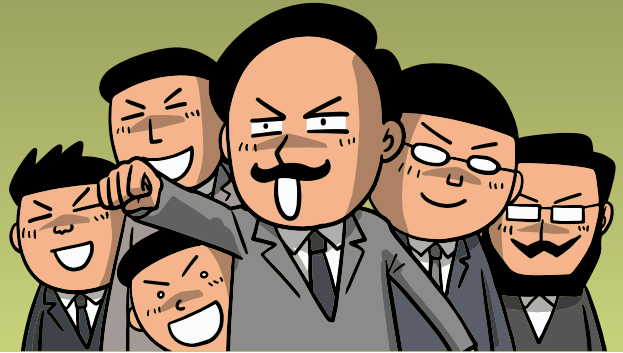
시놉시스

평범한 시골 소녀였던 윤옥은 어느 날 우연히 장터에서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큰 감동을 받는다. 그의 연설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고 윤옥은 대성학교에 입학해 그와 재회하는 데 성공한다. 안창호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된 윤옥은 학업에 더욱 열중한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안창호는 해외로 망명한다. 대성학교를 졸업한 윤옥은 안창호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40대가 된 윤옥은 송태산장에 거주하는 안창호를 방문해 음식을 건네고 말없이 잡초를 뽑으며 그를 돕고자 한다. 다음 해 안창호가 고문당하다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옥은 밤새 통곡한다.



독립의 방법

여운형 선생과 함께 알아보는 독립운동사



여운형 1886-1947
서훈: 대한민국장(1977)

중국 남경에서 3년간 철학공부를 마치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맞춰 독립을 준비하고자 신한 청년당 창단을 주도하며 세계정세 변화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1919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임시 의정원 의원이자 외무부 차장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타국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정치활동과 활발한 대외활동에 주력했다.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올림픽 우승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사장직을 자진사퇴한다. 1947년 정계에 다시 복귀한 몽양 선생은 근로인민당을 창당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다 같은 해 7월 극우파 한지근의 저격으로 서거하였다.

작가

글, 그림 **최훈**

주요작품 ‘하대리’로 데뷔, ‘프로야구카툰’, ‘삼국전투기’

작가의 한마디

여운형 선생님은 다재다능하셨던 분으로, 한국독립운동사와 궤를 같이 하신 분입니다. 여운형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집중하기보다는 여운형 선생님을 통해 한국독립운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놉시스

임시정부 수립 무렵 편견 없이 정세를 받아들이며 행동한 여운형은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신한청년당을 결성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서방세계에 실망한 여운형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공산당 활동에 회의를 느낀다. 중한호조사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연대강화를 위해 중국혁명전선에 참여하지만 국공내전으로 다시 한 번 좌절한다. 이후 여운형은 서대문형무소에 3년을 복역하고,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또 다른 독립운동을 펼친다. 일제의 끊임없는 회유와 위협에도 꺾이지 않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는 건국동맹을 주도하며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독립의 방법을 찾아간다.





도시락을 싸던 보자기가 폭탄을 싸기까지! 임시정부의 살림꾼 연미당의 애정 충만한 독립운동 이야기



연미당 1908-1981

서훈: 애국장(1990)

독립운동가 집안의 실질적 가장 역할뿐 아니라, 직접 항일투쟁전선에 나서며 다중적 독립운동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1930년 상해 한인여자청년동맹 임시위원, 1938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선전 및 홍보활동,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조직부장, 1944년 대적선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및 공작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한국 독립운동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활약한 독립운동가이다.

작가

글, 그림 김달님

주요작품 '러브레터'로 데뷔, '운빨로맨스'(2014), '비둘기가 물고 온 남자'(2018)

작가의 한마디

임시정부의 살림꾼이었던 연미당 선생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보여주신 선생님의 열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놉시스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어록을 줄줄 외우고 다니며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18살 충효(연미당)는 삼일절 기념식날 엄항섭을 만난다. 독립선언문을 끝까지 외우는 강한 투지의 모습에 한눈에 반한 충효는 적극적으로 구애하지만 그는 차갑게 거절한다. 충효는 소꿉친구인 민주와 노랑예가 각자 맡은 바 독립에 기여하는 것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러던 중 민주가 밀정에게 죽임을 당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엄항섭은 밀정에게 위험에 처한다. 충효는 기지를 발휘해 엄항섭을 구하고 노랑예라는 밀정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충효는 타락한 지사들을 경험하며 자신이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 엄항섭에게 다시 고백한다. 그 후 둘은 태극기를 걸고 임시정부 요원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남찾아 가는 길

김학규 장군의 아내가 아닌 독립운동가 오광심의 이야기



오광심 1910-1976

서훈: 독립장(1977)

“우리의 혁명을 위하여, 우리 여성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위하여, 광복군 대열에 용감히 참가하라.”

— “한국 여성 동지들에게 일언을 드림” 중에서 —

1935년 남경에서 5당 통일로 민족혁명당이 창립되자 부녀부 차장으로 선출되었다.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립하자 김정숙, 조순옥 등과 함께 군복을 입고 광복군 창립식에 참가하고, 시안에서 총사령부에 소속되어 복무하였다. 그 후, 광복군이 편성됨에 따라 제3지대장인 남편 김학규와 함께 제3지대의 간부로 광복군 선전활동을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작가

글, 그림 **이아영**

주요작품 ‘외모윤리’로 데뷔(2013), ‘못배운 연애’(2017~2018), ‘로미오가 줄리엣’(2017~2018)

작가의 한마디

언젠가 실존 인물을 다룬 웹툰을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위대한 분의 이야기를 그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광심 선생님의 열정을 지면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뻐던 마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시놉시스

교사이자 조선혁명당으로 이중생활을 하던 오광심은 일본의 만행 소식을 듣고 더 깊숙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자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을 찾아가는 길에, 그곳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돕고자 하지만, 동료들은 여자인 광심이 큰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그러나 남자보다 작전을 더 잘 수행하고 행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광심은 점차 인정을 받게 된다.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참모총장 김학규는 오광심과 농부 부부로 변장해 남경의 무장독립단체들을 방문하고, 오광심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모두 외워서 홀로 만주로 돌아온다. 그녀는 혁명당 내 변절자가 있음을 눈치채고 그자를 처치한 후 지령문을 들고 다시 남경으로 돌아가 무사히 전달한다. 이곳에서 김학규와 재회한 오광심은 남경 조직 통일을 위해 더욱 힘쓴다.



쾌남아 유일한

나와 가족보다 나라와 사회를 먼저 생각한
사람의 이야기



유일한 1895-1971
서훈: 독립장(1995)

1916년 미시건주립대학 상과에 입학,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독립운동 후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선전을 목적으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게 되자, 재미한국인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하는 결의문」을 작성·낭독하여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였다.

1924년 국제무역회사인 유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 12월 유한양행을 창립해 초대 사장에 취임하여 의약품·위생·화장품·농기구·연료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71년 별세하기 전, 아들 유일선 변호사의 딸의 학자금으로 쓰일 1만 달러를 제외한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작가

글 최금락

경력사항 제2회 대한민국 만화대상(1997),
한국만화 스토리 작가협회 회장(2015),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이사(2019~현재)

주요작품 '천재들의 합창'(1990),
'괴짜만화가 차니'(2009),
'영산강 아이들'(2011)

그림 이세경

주요작품 '찌꺼 오래된 연인'(2014),
'천여유혹'(2015),
'스톤에이지'(2017)

작가의 한마디

쾌남아 유일한 웹툰 작업을 하는 동안 유일한 박사님이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대에 감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같은 반열에서 평가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에 작업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일한 박사님이 꿈에 그리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마음을 점검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시놉시스

1904년 개신교 신자였던 유기연은 미국 감리회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듣고, 10살에 불과한 장남을 유학보낸다. 미국에서 유일한은 기독교의 노동윤리를 배우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며 사업을 일으키고 독립투쟁에도 헌신한다. 독립 후에는 교육과 의약사업 보국에 매진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열정의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한다.





러시아와 유럽을 무대로 한 청년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이위종 1887 - 미상

서훈: 대통령장(1962)

어린 시절 부친 이범진을 따라 미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자라나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아버지를 보좌하여 외교관으로서 일했으며,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특사로 파견되었다. 헤이그에서 일제의 방해를 무릅쓰고 일제 침략의 실상과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명문의 연설로 역설하여 많은 공감을 샀다. 1910년 국치를 당하자 러시아에서 자결한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작가

글 김나경

주요작품 '루시드 드림'(2015),
'잠자는 공주와 꿈꾸는 악마'(2015~2016),
'사장님과 금비서'(2017~2018),
'1931 흡혈마전(2020)'

그림 래시

주요작품 '보통남남'(2017~2018),
'눈을 떠요, 용사님'(2019),
'베리베리머치'(2019)

작가의 한마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 110년 전 러시아와 유럽에서 활동하셨던 이위종 선생님의 삶은 현대 독자에게도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어려운 역사 이야기가 아닌 불공정한 탄압에 맞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읽어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시놉시스

만국평화회의 때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임무를 수행코자 이상설과 이준은 이위종을 찾는다. 이위종의 호방한 성격과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에 놀라지만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과 지성에 남몰래 감탄한다. 일본의 만행을 살살이 알게 된 이위종은 임무의 막중함을 깨닫고 헤이그로 출발한다.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위종은 차분히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제국의 힘에 밀려 임무는 실패로 돌아가고 낙담한 이위종은 유럽의 한인들을 만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후 그는 블라디미르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1차 대전에 참전한다.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적기훈장을 받게 된 축하자리에서 이위종은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조선 민중이 깨어나 반드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리라 희망을 느끼며 그는 미소짓는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1937년 혈연단신 중국으로 넘어가 조선의용대와
광복군에 입대하여 독립을 위해 싸운 전월선 지사의 이야기



전월선 1923-2009
서훈: 애족장(1990)

1939년 9월 중국 귀주성(貴州省) 계림(桂林)에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에 입대하고, 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병사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4월 20일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제28차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광복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는 1942년 4월 20일부터 줄곧 광복군 제1지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작가

글, 그림 정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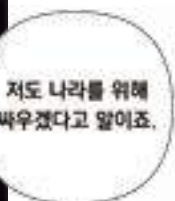
주요작품 '야콥의 사다리'(2006), '어메이징 몬스터'(2017~2018)

작가의 한마디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월선, 김근수 지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월선 지사님의 삶을 통해서 소리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들의 힘이 모여 독립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월선> 작업을 하면서 전월선, 김근수 독립운동가 부부를 만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독립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놉시스

전월선은 남편의 기일에 손녀를 만나 자신의 과거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17살 되던 해 중국으로 떠난 그녀는 조선의용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펼치다 광복군에 합류한다. 그곳에서 김근수를 만나 결혼을 하고 중국에서 아들을 낳는다. 1945년 광복군은 미국과 협력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 불안한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 혼돈 속에서 김근수, 전월선 부부는 자신이 했던 독립운동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전월선은 손녀에게 자랑스러웠던 지난날을 들려주며 끝나지 않는 독립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조선 비밀 결사

대동단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뜨거운 두 남자 전협과
최익환은 전국적 비밀결사 대동단을 만들어 일제와 싸운다



전협 1878-1927

서훈: 애국장(1990)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형세를 관망하던 최익환과 전협(全協, 1878~1927)은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 사회의 자유 개발을 3대 강령으로 하는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대동단(大同團)’이라 이름하였다.

전협은 대동단 단장으로 의친왕 탈출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같은 해 11월 만주 안동역에서 체포되었다.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 형을 인도 받고 복역 중 1927년 7월 11일 옥고로 중태에 빠져 가출옥하였으나 병사하고 말았다.

작가

글, 그림 김준범

경력사항 한국만화가협회 신인상(1994), YMCA 선정 좋은 만화상(1998)

주요작품 ‘기계전사’로 데뷔(1989), ‘하늘을 보면’(2019), ‘별툰’(2019)

작가의 한마디

대동단의 목표가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떠나 매우 숭고했고 초기 항일 운동의 다양한 기폭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협과 최익환, 동농과 이강공, 안창호와 이종욱, 수당 선생님과 이신애 열사를 그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놉시스

친일파였던 전협은 마음을 돌려 비밀결사조직 대동단을 건설하여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요원 이종욱을 서울로 밀파하여 전협에게 조선의 귀족과 왕족을 망명시키라고 지령한다. 1차로 김가진을 망명시키고, 2차로 의친왕을 탈출시키기로 계획한다. 의친왕 이강은 급히 결심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탈출을 계획한다. 그러나 전협 일행과 이강은 안동역 역내 찻집에서 모두 체포되고 대동단은 전국적으로 일망 타진된다. 45세 나이에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협은 쇠약해진 몸으로 가석방된다. 그러나 끝내 '아,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의 활약기



전형필 1906 - 1962

서훈: 대한민국 문화포장(1962)

일제의 강점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수집, 보존한 연구가이자 교육가로 훈민정음 원본 등 문화재를 수집하고,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들을 되찾아와 1938년 조선 최초의 근대 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을 세웠다.

작가

글, 그림 노미영

경력사항 SF 어워드 만화웹툰부분 대상(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2019)

주요작품 '살레타'(1999~2003), 'BOUNDER'(2017~2018), '심해수'(2018~현재)

작가의 한마디

“정한수 안의 차돌 같았던 분”이었다는 후손분의 말을 듣고 잠시 숨막히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정갈함 속에 들어앉아 단단하게 자신과 나라의 보물을 지켜낸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간송이 모아온 보물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물에 집중해서 그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얀 차돌 같은 간송을 만났다고 느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시놉시스

전형필은 일제 말기 한국의 문화재를 싼값에 국외로 팔아넘긴 일본 상인들에게 맞서 국보를 지키다. 국보 294호 백자(청화백자 약간진사철재 난국조충문병)를 사기 위해 일본인 수집상 야마나카가와 대결해 결국 백자를 지키는 데 성공한다. 문화재를 모아 사설 박물관 보화각(간송 미술관의 전신)을 만들던 전형필은 독립 이후에는 다시는 문화재를 사 모으지 않는다.

이는 수집욕이 아닌 나라의 귀중한 보물을 지키려고 한 젊은이의 신념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정세권 북촌을 짓다

민족의 부국을 꿈꾼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정세권,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적 의미와 그의 독립운동을 되돌아본다.



정세권 1888-1966

서훈: 애족장(1990)

1923년 조만식·안재홍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가 발기되자 이에 참가하여 서울지회를 설립했다.

1930년 조선물산장려회 서울지회의 경리부 상무이사로 선출되고, 1930년에는 중앙회의 경리부 상무이사로 선출되었으며, 1934년 중앙회 이사로 선출되어 회관건립·강연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되자 서울지회에서 활약하였고, 1930년 신간회 서울지회의 대회준비위원회에서 김응집·홍기문 등과 함께 재정부원으로 활동했다.

1935년에 서울 화동에 있는 2층 건물과 부속 대지를 회사하여 조선어학회의 국어운동과 사전편찬사업을 지원했다.

작가

글, 그림 최윤열

주요작품 '제로테이커'(2002), '레드돌'(2016), '블러드 블레이드'(2018)

작가의 한마디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분들께 늘 값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독립운동가 프로젝트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삶을 미약하게나마 그려낼 수 있어 영광스러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정세권의 삶과 철학을 알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웹툰화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놉시스

조신의 심장이자 600년 전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도 '경성'을 일본의 도시로 만들려는 일제의 계략에 맞서
정세권은 북촌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정세권은 북촌의 주택을 사들여 개량한옥을 짓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본의 압박이 있었지만 여러 조선인들과 이겨내며 북촌 한옥마을을 완성한다. 정세권이 지킨 가회동 31번지
'북촌 한옥마을'은 지금도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으로 우리의 얼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한일 강제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3·1운동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전다르크

공부가 즐거운 소녀가 여전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지복영 1920-2007

서훈: 애국장(1990)

부친 지청천을 좇아 중국으로 건너가 수학하고,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오광심·김정숙·조순옥 등과 함께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총사령부가 중경에서 시안시 이부가로 이동함에 따라 지복영도 시안으로 옮겨갔다.

1942년에는 광복군 제3지대로 배속되어 광복군 초모위원회 위원 겸 비서로 부양에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임시정부 선전부 자료과와 선전과에 복무하면서 대적 선전방송을 하고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 등 활동하였다. 1945년 4월에는 임시정부 회계검사원 및 조리원에 임명되어 겸직 근무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작가

글, 그림 김유

주요작품 ‘그와 그녀의 소원’(2015), ‘나의 스마트보이’(2016~2017), ‘오빠야 누나야’(2018~2019)

작가의 한마디

지복영 선생님의 자서전인 ‘민들레의 비상’ 속 내용을 토대로 제 상상을 덧붙여 작업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쟁취하고자 고군분투한, 지복영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독자들께서도 제 경험과 같이, 이 만화를 통해 지복영 선생님의 족적을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놉시스

1919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지복영은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피난길에 오른다. 학교에 편입해 공부를 하게 된 지복영은 명석한 두뇌와 영리함으로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반 남학생 장위에게 청혼까지 받는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의 집에 머물 때 일제의 공중 폭격에 의해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겪으면서 본인이 애써 외면해 왔던 현실을 직시한다. '이 세상이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껏 배운 학문이 옳게 쓰일 데가 없다'는 깨달음으로 지복영은 나라를 되찾고자 한국광복군에 입대한다. 그녀는 장기간의 유랑생활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결국 쓰러지고, 어릴 적 단짝 친구의 편지를 받고 다시 기운을 차린다. 그녀는 광복 전까지 중국 중앙방송국의 방송실에서 자신의 중국어실력을 발휘하며 대적방송을 담당한다.



한글이 목숨

최현배 선생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제 말기의 상황과 조선어학회 사건의 전말



최현배 1894-1970

서훈: 독립장(1962)

“한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남기나니(생략), 조선말의 말본을 닦아서 그 이치를 밝히며(생략), 찬란한 문화건설의 터전을 마련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본』 머리말에서 발췌

1942년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한글 연구자들을 투옥하기 위하여 조선어학회를 탄압하여 구속되어 잔혹한 고문과 3년간의 옥고를 겪었다.

광복 이후에는 한글학회 이사장, 연희대학교 교수와 부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글 연구와 한글 전용운동에 전념했으며, 한글 가로글씨의 실험과 한글기계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작가

글, 그림 장우혁

주요작품 ‘생존자’로 데뷔(2001), ‘휴머노이드 오마’(2005), ‘력서리’(2004), ‘궁금해 한국지리 1,2’(2009)

작가의 한마디

생각 없이 쓰던 우리말과 글이 누군가의 목숨으로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과 그 과정이 너무 치열하고 험난했음에 놀랐다. 그 당시 한글 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시놉시스

주시경 선생 문하에서 한글을 공부했던 최현배와 종일은 우연히 만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종일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며 최현배의 ‘한글갈’을 편찬하려는 생각을 비웃는다. 이에 그는 방명록에 ‘한글은 목숨’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자리를 떠난다. 조선어학회에 모인 최현배, 태진, 윤지는 한글 연구와 잡지편찬에 열중하던 중 이러한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던 일제에 잡혀 모진 고문을 받는다. 이들은 민족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로 받는다. 감옥에서도 한글의 여러 가능성을 연구하던 최현배는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한다. 미군정 아래서 교과서 편찬 위원이 되어 한글 교과서를 만든다.



어머니

..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3·1만세 운동을 기점을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한도신의 이야기



한도신 1895-1986

서훈: 애족장(2018)

1919년 2월 평안남도 평양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평양만세운동을 기획한 남편 김예진이 11월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게 되자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한다.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에게 은닉처를 제공하고, 8월 김예진이 참여한 평안남도 도청 폭탄 투척을 위해 폭탄을 옮기는 임무를 수행한다.

1928년 12월 2일 김예진의 석방 이후 일본의 탄압과 극도의 빈곤으로 갖은 고초를 당하였다.

작가

글, 그림 이해경

경력사항 오늘의 우리 만화상(200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주요작품 '현아의 외출'로 데뷔(1974), '겨드랑이가 가렵다', '잠들지 못하는 여자'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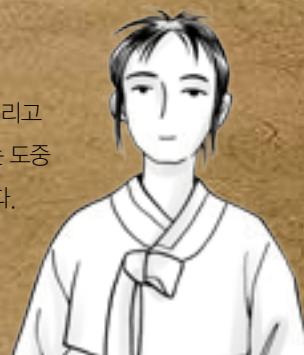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만화가로서 역사적인 웹툰 작업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시놉시스

20세에 김예진에게 시집온 한도신은 평안남도 도청 폭탄 투척 사건에 관계된 남편의 항일운동을 적극 돕는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보낸 독립지사들을 숨겨준다. 이후 남편의 뜻에 따라 아이 둘을 데리고 상해로 가 임시정부 근처에서 독립지사들을 뒷바라지한다. 남편이 폭탄 투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한도신은 남편에 대해 거짓 증언한 나카무라 경부의 뺨을 때려 재판장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오랜 재판 끝에 풀려난 남편은 못다 한 공부를 위해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고 한도신은 이러한 남편의 뜻을 따라 가족을 부양한다.



구름의 노래

‘음악’이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먼구름 한형석의 이야기



한형석 1910-1996

서훈: 애국장(1990)

부친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신예예술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39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의 예술조장으로 “한국행진곡”, “항전가곡” 등 군가를 작곡하였으며, 시안 등지에서 “국경의 밤”, “아리랑” 등을 공연하여 군민을 위안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1941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었으며, 그는 광복군가 1, 2집을 발간하고 국기가, 광복군 제2지대가,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등 항일가곡을 작곡하였다. 1944년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에 선임되어 복무하면서 작곡 및 가곡 활동으로 침체된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광복군과 중국군 연합전선을 한층 견고히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작가

글, 그림 배진화

경력사항 Daum 만화 공모대전 카툰부문 입선(2003),
자원봉사 홍보콘텐츠 웹툰 부문 최우수상
(2011), 노인인식개선 카툰 우수상(2014),
일생활균형 콘텐츠 웹툰 대상(2017)

글, 그림 김기백

경력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콘텐츠 공모 웹툰
부문 최우수상(2014),
부산 판타스틱 웹툰 공모전 우수상(2014)
주요작품 ‘칸’(2016), ‘도시괴담’(2017~2018),
‘손톱’(2019~2020)

작가의 한마디

총과 칼이 아니라 군가와 항일가곡을 통해 독립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민족의 정신을 단결시켰던 한형석 선생의 생애를 들여다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언제고 돌아갈 수 있는 내 나라가 집이라면, 조국을 위해 생(生)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은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작업하였습니다. 한형석 선생께서 일깨워 주신 ‘태극기의 진리’, 조국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화라는 장르로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 한형석 선생을 알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구름의 노래>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한형석 선생을 만나고, 기억하게 되길 마음을 다해 바랍니다.

시놉시스

어린 한형석은 의사가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던 아버지의 뜻과 달리 음악이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운동가가 된다. '나라를 그리워하다'라는 뜻의 한유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이끌던 나월환과의 만남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높여줄 항일독립군가를 작곡한다. 이후 본격적인 예술 구국활동을 펼치고 마침내 중국의 시안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게 된다. 척박한 환경에서 연출해낸 가곡, <아리랑>은 독립군뿐만 아니라 중국을 감동시켜며 동아시아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만든다.



붉은 달의 노래

영화 '밀정' 속 연계순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의열단 최초 여성 단원 현계옥의 삶과 고민, 투쟁 이야기



현계옥 1897-미상
서훈: 미서훈(추서준비)

21세의 나이로 만주를 거쳐 상하이로 떠나 의열단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의열단장 김원봉으로부터 폭탄제조법과 육혈포 놓는 법을 배웠고,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며 목숨을 건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다.

작가

글 우장순, 원혜진

글, 그림 원혜진

경력사항 2013 부천만화대상 어린이상 수상

주요작품 '몸살'로 데뷔, '아! 팔레스타인'



작가의 한마디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지요.

그 치열했던 일제강점기를 내가 살았다면 나의 선택은 무엇이이었을까요?

현계옥이라는 여성은 어떤 고민을 했기에 편한 삶을 내던지고 배고픔과 목숨을 건 항일독립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번 작품은 그 물음으로 시작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현계옥. 그녀를 찾고, 기록하고, 기억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시놉시스

뛰어난 미모를 바탕으로 풍류가무에 한문까지 습득한 한성 최고의 기생 현계옥은 한성권변의 삶에 갈등을 느낀다. 어느 날 젊은 독립운동가들의 술자리에 참석한 현계옥은 후에 평생의 연인이자 동지가 되는 현정건을 만난다. 논개 사당 후원 건으로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구금되는 곤욕을 치른다. 그녀는 결국 일본 경찰을 피해 현정건과 함께 독립운동을 꿈꾸며 만주로 향한다. 의열단에 가입한 그녀는 텐진에서 신의주까지 폭탄을 운반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여성해방에 대한 잡지를 발행하는 등 여러 독립운동을 실행한다. 그러나 연인이자 동료였던 현정건은 밀정에 의해 잡혀 병고로 죽고, 현계옥은 끝내 밀정을 잡아 처단한 후 모스크바로 망명한다.



나는
의열단이다.



밀지

호머 헐버트는 고종의 밀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행 배에 오르고 수상한 누군가 밀지를 노리고 그 뒤를 밟는다.



호머 베잘렐 헐버트 1863-1949

서훈: 독립장(1950)

1906년 『대한제국멸망사』를 저술하여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였으며, 고종황제의 특사로 1907년부터 5월
부터 7월까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강연과 신문 기고글, 1919년 8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그리고 194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자유대회에서는 을사늑약과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학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했다.
특히 한글을 사랑하여 <사민필지>라는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만들었다.

작가

글 최해솔

경력사항 제13회 대한민국창작만화 공모전 카툰부문
최우수상(2015),
인스타툰 공모전 우수상(2019)
주요작품 '침팬지는 낚시꾼'(2016)

그림 고태야

경력사항 2020년 봄툰 입춘 공모전 개나리상 수상
주요작품 '환생의 밤'(2018)

작가의 한마디

최해솔_<독립운동가 웹툰 ; 밀지(密旨)> 제작에 참여한 최해솔입니다. <밀지(密旨)>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하는 불행의 시기, 한반도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호머 헐버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간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인 주인공이 왜 한국의 독립에
끝까지 투신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태야_지금의 대한민국을 있을 수 있게 해준 독립운동가들의 일대기를 그릴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시놉시스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호머 헐버트는 콜트 그리고 수행원 이방대와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셋이 잠시 자릴 비운 사이 짐이 몽땅 헤집어져 있고, 객실을 살피던 헐버트는 고종의 밀지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방대는 승객과 승조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선내 수색에 나서고, 콜트는 헐버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를 선다. 그러나 밀지를 훔친 콜트는 정체가 탄로가 날까봐 헐버트에게 총을 겨누고, 이러한 콜트에게 헐버트는 왜 자신이 한국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지를 설명한다. 결국 밀지를 전달하려는 그의 뜻을 이해한 콜트는 밀지를 돌려주고 헐버트는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성한다.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잊을 수 없는 모습

낮고 가난한 민중을 위해 살기로 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
그가 조선인을 위해 싸워야 했던 이유.



후세 다쓰지 1879-1953

서훈: 애족장(2004)

한국인의 인권과 독립을 위해 투쟁한 일본의 인권변호사이다.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한국인 유학생 변론을 시작으로, 제1·2차 조선공산당사건, 한신[阪神] 교육투쟁사건 등 광복 전후 재일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다. 그는 평등사회, 인도주의를 추구하여 한국·타이완 등 식민지 민족과 민중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사건에 헌신하였으며, 한국인을 포함하여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변호한 까닭에 당국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정지 3회, 투옥 2회 등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46년에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저술하였다.

작가

글, 그림 김한조

주요작품 ‘탐구생활’로 데뷔, ‘소년의 밤’(2008), ‘기억의 촉감’(2012), ‘재일조선인-우리가 외면한 동포’(2019)

작가의 한마디

역사 인물을 소재로 만화작업을 진행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후세 다쓰지 선생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하나둘 알아가는 과정은 두렵지만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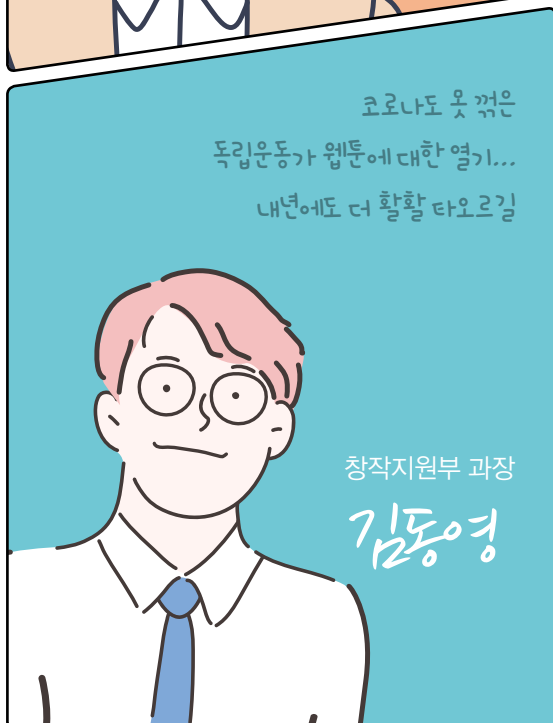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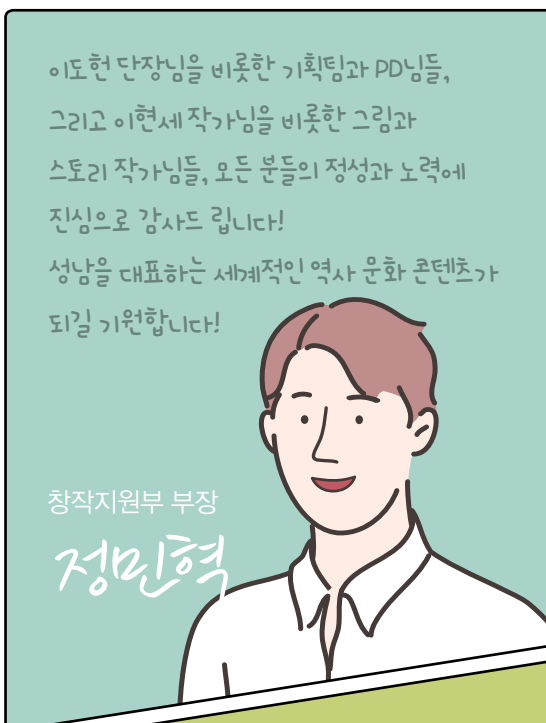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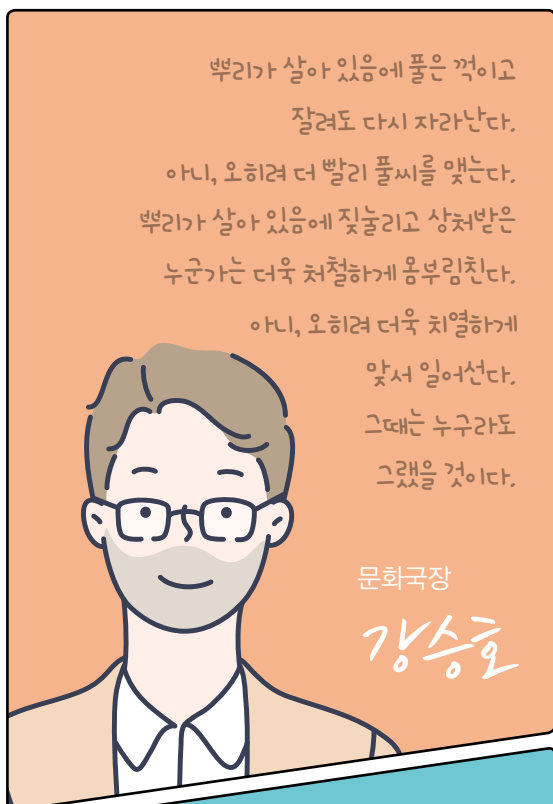
후세 선생께서 몸소 실천한 인류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역사적 수혜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놉시스

1926년 7월 31일 새벽 일본 도치기현 외곽 갓센바 묘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가네코 후미코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변호사 후세 다쓰지를 필두로 흑우회 동지들과 후미코의 모친 그리고 부검을 위해 동행한 의사였다. 가네코의 시신을 수레에 실어 화장터로 가는 길 그리고 화장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옮기는 기차 안에서 후세는 일행과 함께 ‘독립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되묻는다. 그리고 후세 변호사가 조선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호를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게 된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사람들





언론이 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미디어

헤럴드경제

2020. 03. 20

‘은수미 웹툰’ 시즌2 개막.. 33인 독립운동가 재조명



성남문화재단이 14년째 이어 올해도 새로운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웹툰으로 재조명한다.

성남문화재단은 '제2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 작가로 확정하고, 전장(戰場)의 항일투쟁 아나와 문화예술계나 기업인 등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다양한 독립운동사로 웹툰 제작에 나선다. 문화예술계나 기업인 등 더욱 다양한 분야 독립운동가들로 범위를 확대해 웹툰 제작에 나선다... 중략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60840@heraldcorp.com

경기신문

2020. 06. 03

웹툰작가 손에서 다시 태어난 독립운동가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은수미, 대표이사 노재찬)이 '제2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웹툰으로 재탄생한 독립운동가 33인의 웹툰 캐릭터를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작품 제작에 돌입한다... 중략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경기신문

헤럴드경제

2020. 07. 29

펍수, '은수미 독립운동가 웹툰' 홍보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 채널 확정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은수미, 대표 노재찬)이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연재 채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품 연재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30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영웅),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서비스 운영사인 아이이나무(대표 박보미)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략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fobi40@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20. 11. 25.

광복회, 성남시에 독립운동가 33명 웹툰 전집 기증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은수미, 대표 노재찬)이 '2020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연재 채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품 연재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단은 30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영웅), 교육용 웹툰 플랫폼 EBS툰의 서비스 운영사인 아이이나무(대표 박보미)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략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fobi40@heraldcorp.com

다들 독립운동가 웹툰을
읽어봤을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33인 웹툰' EBS툰에 연재

2020. 08. 13

성남문화재단 ★ 성남시 문의 031-703-6000 | www.sncf.or.kr

기억해야 할 이름
우리들의 위대한 이야기

2020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8월 15일 독립운동가 웹툰 EBS툰 연재시작

독립운동가, 웹툰으로 만나보세요.
www.ebstoon.com

아주경제

2020. 07. 01

은수미 시장 "더 많은 독립운동가 구현 역사·문화적 가치 알리도록 하겠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시민들이 어떻게 쉽게 독립운동가와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콘텐츠로 구현해 시민들에게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은 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앞 광장과 1층 누리홀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AR 체험존을 찾아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AR 체험존은 독립운동가 100인 월드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이용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김구 선생, 이상재, 독립운동가 정경화, 송남 출신 독립운동가 남상목 3인을 복원한 후 성남시AR 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독립운동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중략

(성남) 박재현 기자입력 · 2020. 07. 01

광복회보

2020. 08. 04

광복회, 독립운동가 33인 만화 출간... ‘역사정의실천 만화가’ 33인 선정



독립운동가 100인 프로젝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김금숙 만화가를 비롯한 만화인들이 김원봉 광복회장과 함께 역사정의실천 선정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복회(회장 김원봉)는 오는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남문화재단의 제작지원을 받아 1차 '위대한 시민의 역사' 제하의 백범 김구와 영화인 나운규 등 33인 독립운동가 만화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김원봉 회장은 독립운동가 만화를 그린 만화가 33인과 만화작가 8인에게 '역사정의실천 만화인'과 '역사정의실천 만화작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선정패에는 우리나라 토종나무로 '정의를 상징하는 노귀나무' 꽃이 새겨져 있다. 허영만 화백은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역사의 이름으로 호명 하는 일은 시민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우리 만화가들이 먼저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잊혀지고 지워진 우리 선명들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특히 이념의 벽에 막혀 남과 북 아다에서도 발 디딜 곳 없었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에게 우리는 큰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全南日報

2020. 07. 31

광복회,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제작 ‘역사정의실천 만화가’ 33인 선정



독립운동가들과 만화인들이 만나다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시리즈1
출판기념회
역사정의실천 만화가 선정패 전달식